

[신년사]조명우 인하대 총장 "위기 극복 통해 변화의 전기 마련하겠다"

등록 2022.01.03 10:52:07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사진=인하대 제공)

[인천=뉴스시스] 김동영 기자 =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이 3일 “위기 극복을 통해 다져진 저력을 바탕으로 변화의 전기를 마련해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조 총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작년 한 해 학교에 외적인 위기가 이어졌지만 여러 괄목할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미래 발전을 위한 역량을 확인하는 시기였다”며 “특히 연구과제 수주 실적이 개교 이래 최고 성과를 기록했으며, 외국과의 교육협력사업도 발전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올해는 혁신을 이루는 시발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의 역점사업으로 ▲신축 캠퍼스 사업 추진 및 기존 캠퍼스 환경 개선을 위한 캠퍼스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과제수주 제고를 통한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발전 ▲문제해결형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특성화 추진을 내세웠다.

조 총장은 우시호행(牛視虎行)이라는 사자성어를 올해의 화두로 제시하면서 “소처럼 느리지만 하나하나 확실히 살피고 호랑이처럼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인하대를 100년의 반석 위에 올릴 기반을 구축하고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새로 새기는 희망과 각오가 모두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인하대가 함께 하겠다”며 “큰 꿈을 품고 힘차게 달려가자”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